'이춘재 8차 사건' 계기 검·경 갈등↑

국과수 감정결과 두고 주장 엇갈려 '주장-반박-재반박'

"수사권 조정 있어 기관 간 다툼으로 비쳐 국민께 송구"

검찰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수사'를 계기로 촉발된 검경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이춘재 8차 살인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주장-반박-재반박'이 오갔다.

수사본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사항에 대한 검찰이 반박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스탠다드(Standard·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시료)로 명시된 시료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시료분석을 담당하고 현재도 근무중인 A박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분석의뢰한 체모는 '현장음모'가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회 걸쳐 A박사와 대면해 질의응답을 실시했는데 용의자들의 시료는 샘플로 명시해 분석의뢰 한 것이다"며 "엉뚱한 제3의 인물의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기남부청은 이춘재 8차 사건 브리핑에서 "국과수가 당시 원자력연구원의 결과값을 임의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요한 오류를 범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국과수 감정결과 자체가 오류였다는 취지다. 검찰이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결과를 경찰이 수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데한데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경기남부청의 이같은 발표가 있은 지 8시간이 지나 검찰이 반박 입장을 냈다.

검찰은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뀌치기 됐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경찰의 발표내용은 검찰이 입수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의 감정서 등 제반자료, 관련자들 및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비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8차 사건 범인의 검거돼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씨의 증거로 사용된 감정서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제3자의 체모를 채취, 마치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음모로 꾸몄고 이로 인해 감정결과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전날 경기남부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과 초등생 김양 실종사건 희생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30여 년 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다"며 "그러나 최근 이런 경찰 노력이 수사권 조정에 있어 기관 간 다툼으로 비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수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수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고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미 지난 11일 검찰이 전담조사팀까지 꾸려 이춘재 8차 사건을 '직접수사' 하겠다고 나선 직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측 수사기관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로 이러한 의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춘재 8차 사건을 둘러싸고 양측이 벌이는 일련의 신경전은 우려를 넘어 심증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뉴스1

'강제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1심서 무죄

재판부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보여"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 군수가 부적절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지만 다른 증거를 보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나 제보를 했고, 당시 상황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이같은 상황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뒤 7개월이 지난 시점인 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피해자는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불리하게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유 군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아라 기자

기아차 광주공장, 범죄피해 지원센터에 1천만원 후원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사)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아차는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아픔을 나누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밝은 내일을 설계해 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12년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인연을 맺은 후 8년째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1억3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의 회복과 더 힘찬 내일을 응원하며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단신 ●

60대 운전자, 승용차 추돌 후 반대편 애견가게 돌진

17일 오후 9시1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A씨(63)가 몰던 승용차가 B씨(22)의 승용차 옆면을 들이받은 뒤 도로 건너편 애견 가게로 돌진했다.

애견가게는 영업이 끝난 뒤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리창과 탁자 일부가 파손됐다.

두 운전자 모두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B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차로 변경 과정에서 B씨 차와 부딪친 후 플라스틱제 중앙분리대를 뚫고 상가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30대, 맞은편 차에 놀라 주택 담 충돌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31)는 전날 오후 10시1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를 몰다 주택 담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벽돌로 된 담벼락에 금이 가면서 일부 무너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9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굽어진 골목길을 지나던 A씨가 맞은편 차량 불빛에 놀라 급히 핸들을 꺾으며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훔친 명품패딩 SNS자랑했다가 딱걸린 10대 2명

명품 패딩을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이 훔친 옷을 SNS에 자랑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명품 의류 매장에서 패딩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군(1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3일 광주 서구 백화점과 아울렛 명품 의류 매장에서 168만원 상당의 패딩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명이 손님인 것처럼 매장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 다른 한 명이 옷을 입고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각각 패딩을 한 벌씩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초기 매장 CCTV 분석으로 범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성년자인 A군과 B군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한 경찰이 어린 학생들이 SNS로 '인증샷'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매장 이름과 패딩 이름 등을 SNS에 검색해보게 됐다.

그 결과 CCTV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A군을 찾을 수 있었고 SNS계정으로 피의자를 특정, A군을 전날 광주 서구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군 등은 해당 명품 패딩을 입고서 "짝퉁이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부모님 동석 하에 경찰에 출석한 후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실 손님으로 왔다 흉기 강도 돌변 40대 구속

전북 군산경찰서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 B씨(27·여)를 흉기로 위협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B씨를 폭행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손님으로 미용실을 찾았다가 이발을 마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